

위험관리제도 정착과 재보험 수지개선에 역점



白源九
〈재무부 증권보험국장〉

우리나라 손해보험산업은 지난 60년대 초부터 80년대 초까지 20년간 연평균 약 42%의 높은 성장을 계속 하여왔고 최근에 와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기는 하나 국민소득 수준향상에 따른 국민들의 저축여력이 급속히 증대되는 과정에 있어 다른 산업부문에 비하여 앞으로도 고도의 성장이 기대되는 부문입니다. 지금까지 손해보험산업의 성장의 주된 요인은 정부의 적극적인 보험산업 육성책 즉, 보험료에 대한 소득세 공제, 특수건물 화재보험등의 무보험제도 실시 및 보험산업의 근대화시책 추진등이 주요하였고 경제발전에 따른 생산량 및 물동량의 증대로 기업보험이 신장된 결과라고 할수 있으며, 또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보험업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손해보험산업은 최근 2,3년간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영업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며, 그동안 보험경영의 내실화보다 양적성장에 치우쳤던 결과 모집질서, 보험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고급인적자원의 확보 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보험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제경쟁력을 시급히 확보해야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업계는 과거와 같이 정부의 정책적인 보호속에서 안주하려고 기대하거나 무사안일한 경영을 계속해서는 안될 것이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서 경영의 내실과 국제경쟁력을 다져야 하겠습니다. 이번기회를 빌어 손해보험업계에 당부하고 싶은것은, 첫째 보험상품을 다양화하여 소비자의 선택범위를 넓혀주고, 둘째 강제모집, 덤핑판매, 리베이트 지

급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보험모집상의 부조리를 제거하는 한편 공정하고 신속한 손해보상으로 계약자의 보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째 지금까지의 기업보험 모집에서 탈피하여 대중보험 개발과 함께 대 국민보험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인재양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같은 당부를 업계가 성실히 수행해 줄 것임을 믿고 이러한 업계의 노력을 바탕으로 1986년도에는 다음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1. 보험요율의 탄력적 조정

보험요율의 조정요인이 있는 일부 보험종목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요율을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즉, 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에서 실시한 요율검증결과를 토대로 조정대상으로 선정된 보험종목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보험요율을 조정하여 종목간에 손해율이 전가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2. 해외재보험 수지개선

우리나라 재보험거래의 수재상황을 보면 최근에는 선별인수원칙에 따라 악성물건 인수를 기피하고 있으나 아직도 해외보험시장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고 과거에 인수한 불량물건이 잔존하고 있어서 상당한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출재면에서도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담보력이 미약하여 양질의 물건이 해외로 많이 출재됨으로써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수재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보험회사 상호간에 원활한 정보교환 체제를 구축하고 선진보험인수기법을 도입하여 해외물건을 선별 인수하도록 하며, 아울러 손해보험회사의 담보력

증대와 국내보유 확대방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3. 위험관리 기능강화

보험산업이 내실있게 발전하고 대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기능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보험목적물의 다양한 위험을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측정 조사케 하고 동 조사를 토대로 대상물건의 적정한 보험료 부과와 양질의 물건을 선별하여 자기보유를 확대하고, 취약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서비스를 통하여 보험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위험관리제도를 정착시켜 나가 고자 합니다.

4. 국제경쟁력 제고

이제 우리나라 보험업계는 외국보험회사와 대등한 조건에서 경영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외국사와의 경쟁은 우선 국내에 진출한 외국 보험회사와 상품, 요율, 고객에 대한 서비스 등을 놓고 시장쟁탈전이 될 것입니다만 정부는 앞으로 우리 보험회사들이 해외에 진출하여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와 최근의 해외보험시장 정보수집등 수용태세가 선행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 손해보험업계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며, 따라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끝으로 손해보험업계에 종사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안고 있는 어려움과 많은 문제점은 우리 보험인들이 아닌 어느누구도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지혜를 모으고 합심하여 보험산업이 건전하게 발전되도록 분발하기를 당부드립니다. ■

정성어린 '86준비

가슴마다 보람보람